

마이스터경영학과(야) 시사, 상식문제

문 제

[기 사]

백인 남성 1% vs. 흑인 여성 35%. 이 수치는 인종과 성별에 따른 ‘인공지능(AI)’의 안면인식 오류율을 의미한다. MIT 미디어랩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I가 백인 남성 얼굴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킬 확률은 단 1%에 불과하지만, 남성에서 여성, 백인에서 유색인종으로 갈수록 오류율은 점점 높아져 흑인 여성의 경우에는 오류 발생 확률이 35%까지 상승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구글 포토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이 흑인 여성의 사진 데이터에 ‘사람(human)’이 아닌 ‘유인원(apes)’, ‘고릴라(gorillas)’와 같은 단어를 자동 태그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AI 알고리즘 개발자의 대부분이 25살부터 50살 사이 백인 남성이고, AI가 학습한 데이터도 백인 남성에 편중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 중간생략 ...)

윤리학과 형법 분야에서 종종 논의되는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를 떠올려 보자. 내용은 이렇다. 빠르게 달리는 트롤리(전차)가 있다. 전차는 운행 중 이상이 생겨 제어 불능 상태가 된다. 이대로 둔다면 전차는 원래 행로를 달릴 것이고, 진행 방향 선로에 묶인 5명은 사고를 면치 못한다. 이때 전철기를 조작하면 전차를 다른 선로로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원래 죽을 위기였던 5명은 살릴 수 있지만, 다른 선로에 묶인 1명은 사고를 피할 수 없다. 어느 쪽도 대피할 시간은 없다. 이때 전철기 레버를 작동해 진행 중인 전차 방향을 바꾸는 것은 허용될 것인가?